

##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김흥순\* · 원준혁\*\*

## A Review on the Implications of Demographic Factors i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Perception

- Focused on Three Pilot Projects of Maeulmandeulgi in Seoul-

Heungsoon Kim\* · Jun Hyuk Won\*\*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대상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행태 및 계획요소에 대한 평가를 조사 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학력, 주택소유 여부, 직업, 지역에 대한 애착심 등 여덟 개 요인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 여덟 개 변수에 대한 가설을 구축하고 검증한 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 관련 가설만이 채택되고 나머지 일곱 개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모든 인구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개별 계획요소들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적 특성에 근거해서 일반론적 경향성을 추론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에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이해관계,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단독주택 거주자의 역할이 사업의 성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 인적 특성

**ABSTRACT :** This study surveyed three communities where the pilot project of 'Maeulmandeulgi' had been fulfilled in Seoul. Based on the survey, this study analyzed the extent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erms of some demographic factors, which encompass sex, age, length of residence, income, education, home ownership, occupation, and affection for the community. The eight hypotheses corresponding to the eight factors were constructed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The seven hypotheses except the affection for the community were rejected unlike most the preceding studies. In the meantime, it is identified that all the demographic groups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each planning element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In this regard, policy makers need to focus on the interests of individual events rather than demographic factors when they promote the projec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clear difference between groups classified by 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the affection for the community, self-interest motive,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Hanyang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soon@hanyang.ac.kr, Tel: 02-2220-0334)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Master's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Hanyang University)

and the role of women, seniors, the less-educated and residents of detached dwellings to successfully promote the project.

**Key Words** : Maeulmandeulgi project, resident participation, demographic factor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시민의식의 고양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과거의 관주도적·일방통행적 접근으로부터 주민참여적 접근으로의 변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백기영, 2008). 이러한 배경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과거의 개발지향형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관과 전문가가 주도가 되어 추진해온 과거의 전면적인 철거방식의 도시재개발 사업을 주민의 의견과 참여에 바탕을 둔 점진적 정비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서울특별시, 2010). 이처럼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주도’와 ‘주민참여’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단일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매 사업(지구)마다 상이한 의사와 행태를 보이는 매우 가변적인 주체라는 사실이 주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지방행정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고유한 특성이 주민참여와 행정사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다.

전술한 것처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와 의식을 주민의 특성을 매개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이 완료된 서울시내 3개 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특성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와 사업에 대한 인식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90년대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1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휴먼타운)’을 계획하여 4개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사업을 완료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4개 시범사업 대상지 중 최종적으로 강서구 화곡동(내촌마을)을 제외한 3개 대상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참여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서울시 마을 만들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암사동(서원마을), 성북구 성북동(선유골), 강북구 인수동(능안골)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2012년 2월 3일부터 2012년 3월 16일까지 우편설문과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113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주민참여 관련 일반론을 가설화하여 이를 검증하는 과정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특정 사업에서 표출된 주민 인식 및 참여 행태를 살펴보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분석에 있어서는 인적 특성에 기반한 교차분석을 수행하며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된 집단별 평균차를 ANOVA와 t-test,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방식이 사용된다.

### 3. 3개 시범지역의 특성

3개 시범지역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옛날 신선이 내려와서 놀았다는 유래에서 이름 붙여진 성북구 선유골은 마을 내부와 주변에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만해 한용운 심우장, 상허 이태준 고택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커뮤니티이다.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에서 성북동길을 따라 북서측으로 약 1.4km에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 서울성곽(300m 거리), 서측으로 북악산과 삼청각(900m 거리)에 인접해 있다. 계획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지로서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참여와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독주택이 65.3%를 차지하고 있는 선유골에 대해서는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필지 규모, 층수지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건폐율 30%와 높이 2층, 8m 이하의 경우 완화조건 제안, 공동개발 지침 준수 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 차량출입금지구간이 계획되었고 주민협정내용과 주민조직 운영이 권장사항으로 제시되었다(김혜정, 2012).

그 명칭이 능터가 있는 골짜기에서 유래하는 강북구 능안골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연경관지구로서 기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지에 대해 단독주택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북한산의 경관이 보호되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마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계획이 작성되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선, 그린파킹, 담장가꾸기, 골목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 서원마을은 1979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조성된 취락지구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2~30년 동안 거주하고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원준혁·김홍순, 2012). 서원마을은 현행법상 보장되는 3층(12m) 높이의 층수를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2층(8m)으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서 시범사업 대상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기타 계획에 있어서는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한정하고 열린 정원인 골목길의 그린존(Green Zone)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벽면한계선을 지정한 바 있다.

서원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달리 나머지 2개 마을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불만도 일부 있었

<표 1> 조사대상지 개요

마을명	자치구	위치	규모(면적, 주거동)	용도지역	설문부수
선유골	성북구	성북동 300일대	44,630m <sup>2</sup> , 100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32
능안골	강북구	인수동 532-55 일대	38,520m <sup>2</sup> , 72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42
서원마을	강동구	암사동 102-4 일대	31,043m <sup>2</sup> , 64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39

던 것으로 평가된다(서울특별시, 2011).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성과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초점은 시범사업 단계에 맞추어진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 및 인식, 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계획 및 평가요인과 관련된 연구로 한정하여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선 김남두 외(2006)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에 대한 다양한 국내의 사례비교를 통해 주민자치조직, 지역애착심 고취, 공동체의식 함양, 마을 행사 등의 항목으로 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사업 주체 측면, 시스템 측면, 제도·행정 측면으로 항목화하여 각각의 사례별, 사업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태윤재·박소현(2010)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각 지방 도시들을 대상으로 법·제도화, 재정지원, 행정지원, 전문가 지원 등의 변수를 통해 마을 만들기의 내용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재준·이상문(2003)은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요주체와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지도자의 선도, 주민참여, 주민소득 증대, 외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마을 만들기 활성화 요인으로 마을지도자 및 주민자치조직의 선도, 주민참여, 주민소득 증대, 외부의 지원과 관심 등이 선정되었다.

김영 외(2008)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AHP를 통해 참여성, 자율성, 책임성 등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조직 운영, 사업에 대한 인식, 주민행사, 문화생활, 행정의 지원 등이 마을 만들기의 중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송혜승 외(2008)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평가 및 향후 마을 만들기 계획에 있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시 북구 문화동을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한평공원, 경관개선, 안전성 등의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AHP를 통해 대상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경제성, 환경성, 편리성, 안전성, 문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들은 생활안전, 이웃과의 관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생활환경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지혜 외(2009)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도에 관계된 요인과 요인들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민·관 파트너십, 효과도, 인지도, 만족도, 참여도, 필요성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양재혁(2010)은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주체간의 파트너십과 운영체계, 파트너십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 주민대표의 역할, 행정조직 구성, 마을조직의 구성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 2. 인적 특성별 주민참여 행태

주민참여 행태를 인적 특성 변수에 근거해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물리적 계획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행정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 설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 한정하여 선행연구들의 발견을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민의 인적 특성을 대체로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교육, 자가소유 여부, 직업, 지역에착심 등 여덟 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도 이들 여덟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주민참여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의 참여도가 높다는 의견(김강조, 1999; 문상필, 2002; 곽현근·유현숙, 2005; 정하용, 2007; 양덕순·강영순, 2008)과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김익식·장연수, 2004; 최정민, 2005; 이병용, 2006; 김동근, 2011)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 연구와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남성의 참여도가 높다는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Conway and Hachen(2005)의 경우 여성의 참여도가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더 많이 생활하는 여성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연령에 있어서는 젊은 연령층의 참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발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1)</sup>(구자훈 외, 1996; 문상필, 2002;

이지혜 외, 2009; 김동근, 2011). 특기할 만한 견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40대에서 참여도가 특히 높다는 주장이다(김강조, 1999; 김익식·장연수, 2004; 양덕순·강영순, 2008). 주로 도시계획·개발 부문에서 연령과 참여도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제시되는 반면, 40대의 적극적인 참여는 주로 정치행정 분야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연령변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한 해외 연구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Lall et al.(2004)의 연구가 연령과 참여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인적 특성으로 흔히 거주기간이 언급된다. 국외연구들은 대부분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져서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Olsen et al., 1989; Conway and Hachen, 2005). 국내 연구에서는 곽현근·유현숙(2005)과 이지혜 외(2009)가 거주기간과 주민참여도 간의 정의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양덕순·강영순(2008)과 김동근(2011)은 거주기간이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견해는 거주기간과 참여도 간에는 선형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거주 6년까지는 참여도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낮아진다는 Oropesa(1992)의 분석 결과이다.

다음은 Conway and Hachen(2005)이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이라 명명했고, Verba and Nie(1972)와 Olsen et al.(1989)이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요인이라 부른 소득, 교육, 자가소유 여부, 직업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

1) 연령과 소득 변수에 대해서 김동근(2011)은 95%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90%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김동근의 분석결과를 유의미한 것으로 분류한다.

저 소득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견해가 일반론이다(Verba and Nie, 1972; Olsen et al., 1989; Perkins et al., 1996; 김강조, 1999; 김재호·오세규, 2001; 문상필, 2002; 김동근, 2011). Verba and Nie(1972)는 사회경제 요인과 주민참여도 간에는 0.45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 대신 소비변수를 사용한 Lall et al.(2004) 역시 높은 후생수준을 가진 집단에서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반면에 적지 않은 국내연구들이 소득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익식·장연수, 2004; 정하용, 2007; 양덕순·강영순, 2008). Conway and Hachen(2005) 역시 소득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이 주민참여와 관련성을 맺는 것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도시행정에 관심이 많다는 점(Rich, 1988; Oropesa, 1995)과 저소득층은 불안정한 주거조건으로 인해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김익식·장연수(2004)의 경우 투표참여를 다루었으며 양덕순·강영순(2008)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광역적 이슈를 다룬 일반론적 조사라는 점에서 소득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요인이 자가 소유 여부이다. 구자훈 외(1996)와 김동근(2011)은 자가소유자의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국외 연구에서도 Olsen et al.(1989)과 Perkins et al.(1996), Lall et al.(2004)이 자가소유자의 높은 참여도를 보고하고 있다. 자가소유자의

높은 참여도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 가치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onway and Hachen(2005)은 공동주택 임차인이 자가주택 소유자보다 오히려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에서 임차인이 자가소유자보다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학력층의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곽현근·유현숙, 2005; 양덕순·강영순, 2008; Verba and Nie, 1972; Olsen et al., 1989; Lall et al., 2004; Conway and Hachen, 2005). 예외적으로 정하용(2007)은 학력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김강조(1999)는 오히려 저학력자의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고, 김익식·장연수(2004)는 선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중졸, 대졸, 고졸 순으로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직업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집단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 고전적인 견해(Verba and Nie, 1972; Olsen et al., 1989)인데, 국내연구에서는 김강조(1999)가 건축업 종사자 및 공무원의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으며, 문상필(2002)은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주민참여가 높는데 비하여 학생, 회사원, 주부의 참여도가 낮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Conway and Hachen(2005)은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한 여성(주부)의 참여도가 오히려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 가장 특이한 분석결과는 이병용(2006)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과 같은 변수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으며, 주민참여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또는 애착은

〈표 2〉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

구분	성별	연령	거주 기간	소득	자가 소유	학력	직업	애착 심	설문 및 피설문자 특성
구자훈 외(1996)					+				서울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구상 과정 중 일부로서 자가소유 자와 세입자 참여정도
김강조(1999)	남성 +	40대 +		+		-	건축업, 공무원		행정참여와 정치참여 별 주민참여 의식
김재호 · 오세규(2001)				+					광주시 6개 공동주택단지 거주자 재건축 의향
문상필(2002)	남성 +	+		+			농민, 자영업		경남 사천시 지방행정 대상 주민 참여 행태
김익식 · 장연수(2004)	insig	40대 + 20대 -		insig		중졸, 대졸, 고졸 순			200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원시 민의 참여도
최정민(2005)	insig								서울 신림11동, 구의3동 담장 허 물기에서 주민참여 행태
곽현근 · 유현숙(2005)	남성 +		+			+		+	충북 청원군 8개면 지역사회 주민 조직 참여요인
이병용(2006)	insig	insig		insig		insig		+	인양 구도시권 거주자의 도시발전과 도 시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및 인식
정하용(2007)	남성 +			insig		insig			충남 4개 시군 지역사회개발사업 에 대한 주민참여 인식 및 정도
양덕순 · 강영순(2008)	남성 +	40대 +	insig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지역공동 체 의식과 행정 및 정치 참여도
이지혜 외 (2009)		+	+						광주 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 행태
김동근(2011)		+(90%)	insig	+(90%)	+			+	서울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에서 주민참여
Verba and Nie(1972)				+		+	+		미국민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이 론적, 실증적 분석
Olsen et al. (1989)			+	+	+	+	+		미시간 주 이스트 랜싱 주민의 마 을협회 참여행태
Oropesa (1992)			insig						마을개선협회에서의 주민참여도
Perkins et al.(1996)				+	+				지역사회 참여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Musso et al.(2001)				-	-	-			LA 광역권 주민들의 마을조직 참 여도
Lall et al.(2004)		insig		+	+	+			인도 벵갈로르 지역 빈민 대상 주민 참여도
Conway and Hachen(2005)	여성 +		+	insig		+		+	보스턴 및 LA의 공동주택 임차인 들의 임차인협회 참여도

곽현근·유현숙(2005)이나 김동근(2011), Conway and Hachen(2005)에게서도 발견되는 사항이나 이비용 외에는 모두 여타 요인들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해외 연구 중에서는 Musso et al.(2001)의 연구에서 예외적인 발견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 자가소유 여부, 학력 등 사회경제 요인과 주민참여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3.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본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규범적 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행정사업과 달리 물리적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각 인구집단이 주민참여에 어떠한 인식과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인적 특성을 다룬 일부 연구들도 인적 특성 자체보다는 전체 연구 중 일부로서 인구학적 특성의 일부만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심도 있는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도시계획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각 인구집단의 사업에 대한 태도, 인식, 참여행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전술한 것처럼 기존 연구들은 매우 엇갈리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도시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각 인구집단의 주민들이 어떠한 인식과 참여태도를 갖는지 알아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성과

의 평가와 검증, 의미부여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사업 추진 시 하나의 가이드라인 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실무 차원의 의의를 갖는다.

## III. 분석

### 1. 분석의 틀

#### 1) 각 집단별 참여에 대한 가설설정

II장 1절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의 일반논제들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논제에 대해 엇갈리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다수의 견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하는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정리한 것이다.

H1: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2: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3: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4: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5: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6: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7: 특정 직업군의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H8: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 2)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지 구이므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특별히 발견되는 주민 인식 및 참여 성향을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 인식 및 참여 성향 요인은 II장 1절의 선행연구 검토로부터 도출되었다. 다양한 분석이 수행되었지만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이 있는 결과로 한정해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설문문항 및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 사업요소 22개와 사업의 성과 및 평가 측정요인 6개를 선정하여 총 28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113명 설문 응답자들의 인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3〉 설문항목

구분		설문항목	척도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행정적 요인	법제도확립, 전문가참여, 행정과 주민협력, 사업홍보, 비용지원, 행정조직구성	리커트
	사회적 요인	주민참여, 주민 간 유대감 형성, 마을행사, 주민자치조직, 주민약속, 주민대표 역할, 마을 이미지개선	리커트
	물리적 요인	담장 허물기, 한평공원, 골목길 정비, 경관개선, 리모델링, 보차분리, 주차공간 확보, 안전성확보, 빈집활용	리커트
사업성과 및 평가요인		인식도, 효과도, 효율성, 형평성, 참여도, 만족도	리커트
인적 요인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자가소유 여부, 학력, 직업, 주택유형, 차량대수, 지역에착심(리커트 척도), 거주마을	명목

〈표 4〉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조사항목	내용(응답자 수, %)
조사대상 마을	서원마을(39, 35%), 능안골(42, 37%), 선유골(32, 28%)
거주기간	1년미만(6, 5%), 1년 이상~5년 미만(15, 13%), 5년 이상~10년 미만(16, 14%), 10년 이상~15년 미만(33, 30%), 15년 이상(43, 38%)
성별	남(58, 51%), 여(55, 49%)
연령	20대(5, 4%), 30대(6, 5%), 40대(17, 15%), 50대(39, 35%), 60대 이상(46, 41%)
학력	고졸 이하(26, 23%), 대졸 이하(65, 58%), 대학원졸업 이상(22, 19%)
직업	공무원(5, 4%), 회사원(14, 12%), 전문직(18, 16%), 자영업(18, 16%) 전업주부(35, 31%), 학생(1, 1%), 무직(13, 12%), 기타(은퇴)(9, 8%)
소득	2천만원 이하(26, 23%),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24, 21%)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18, 16%),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14, 13%)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5, 13%), 1억원 이상(16, 14%)
주택유형	단독(81, 72%), 다세대(7, 6%), 다가구(3, 3%), 연립(22, 19%)
주택소유형태	자가(100, 89%), 전세(8, 7%), 월세(2, 1%), 기타(3, 2%)
소유차량대수	0대(9, 8%), 1대(54, 48%), 2대(34, 30%), 3대 이상(1, 14%)

### 3. 교차분석<sup>2)</sup>

#### 1) 각 집단별 참여도 검정

H1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기각되었다. 참여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차원에서는 여성이 주민참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참조).

〈표 5〉 가설 1에 대한 검정

H1: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남	여	df	t	sig.
	기각	3.47	3.53	111	-0.308	.759
남성과 여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 인식		3.72	4.11	111	-1.993	.049

〈표 6〉 가설 2에 대한 검정

H2: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2,30대	40대	50대 이상	df	F	sig.
	기각	3.36	2.76	3.66	2	5.532	.005
연령대별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3.64	3.18	3.91	2	3.799	.025

〈표 7〉 가설 3에 대한 검정

H3: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1년 미만	1 ~ 5	5 ~ 10	10 ~ 15	15년 +	df	F	sig.
	기각	3.00	3.27	3.44	3.64	3.56	4	.688	.602

H2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역시 기각되었다. 50대 이상 고령층과 40대 장년층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부 선행연구(김강조,

1999; 김익식·장연수, 2004; 양덕순·강영순, 2008)의 결론과 달리 40대의 참여도가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대부분 평일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 30대의 참여도가 50대 이상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40대의 참여부진은 박현근·유현숙(2005), 이병용(2006), 김동근(2011), Conway and Hachen(2005) 등이 지적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 부족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지역에 대한 연령별 애착심이 참여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표 6〉 참조).

H3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역시 기각되었다.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도가 점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사회경제 요인인 소득집단간, 학력집단간, 주택소유형태간 참여도에 대한 검정 역시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먼저 H4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에 있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간소득 계층의 참여도가 오히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H5의 검정을 위해 주택소유형태별로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자가 소유자의 참여도가 다소 높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이 확인되었다. H6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에서는 고졸 이하 계층의 참여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8〉 참조).

2) 〈표 4〉의 조사내용을 가설에 맞게 그리고 각 집단별로 응답자 수를 유사하게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8〉 사회경제적 요인의 가설에 대한 검정

H4: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0~4 천만	4~8 천만	8천~1 억이상	df	F	sig.
	기각	3.36	2.76	3.66	2	5.532	.005
H5: 자가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자가	임차		df	t	sig.
	기각	3.52	3.31		111	.677	.500
H6: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고졸 이하	대졸 이상		df	t	sig.
	기각	3.65	3.45		111	.865	.389

H7 “특정 직업군의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역시 기각되었다. Conway and Hachen (2005)의 견해처럼 전업주부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이 확인되었다(〈표 9〉 참조).

끝으로 지역애착심과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요인 간에는 99% 신뢰수준에서 0.413의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H8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여덟 개의 가설 중 일곱 개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적 특성별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세 개 지역을 합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2)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특성

성별 분석에 있어서 여성의 지역애착심이 90% 신뢰수준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nway and Hachen(2005)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을 가능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인식과 달리 실제 참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기타 항목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역별로 나누어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서원마을에서는 여성들의 인식도와 지역애착심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두 마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중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표 10〉 참조).

〈표 10〉 남녀 간 지역애착심의 차이

구분	남	여	df	t	sig.
지역애착심	3.59	3.96	111	-1.962	.052

연령대별 분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40대의 점수가 낮은 반면 30대 이하 및 50대 이상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사업에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인식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와 필요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0대 이하는 인식도는 낮지만 당위적 필요성

〈표 9〉 가설 7에 대한 검정

H7: 특정 직업군의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검정 결과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전업주부	자영업	학생	무직	기타	df	F	sig.
	기각	3.60	3.50	3.22	3.74	3.28	3.54	3.40	3.50	6	.654	.687

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대 이상은 인식도와 필요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참여도와 인식도가 연령대에 비례한다는 이지혜 외(2009)의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능안골과 서원마을에서는 전체응답과 유사하게 40대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나타난 반면 선유골에서는 오히려 40대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1〉 참조).

〈표 11〉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구분	2, 30대	40대	50대 이상	df	F	sig.
인식도	3.27	3.00	3.78	2	4.672	.011
필요성	4.09	3.24	3.94	2	4.513	.013
만족도	3.45	2.94	3.59	2	2.233	.112

〈표 12〉 거주기간 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5년 미만	5년~15년	15년 이상	df	F	sig.
지역애착심	3.81	3.80	3.72	2	.078	.925
인식도	3.43	3.80	3.49	2	1.342	.266
필요성	3.71	4.00	3.74	2	1.079	.344
만족도	3.29	3.59	3.44	2	.536	.587
경관개선	4.19	4.12	3.72	2	3.181	.045
빈집활용	4.19	3.41	3.30	2	4.548	.013

사업의 인식도와 필요성은 5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 집단에서 가장 큰 반면, 장기 거주집단이나 단기 거주집단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에 대한 인식도 및 필요성이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이지혜 외(2009)의 연구와 차이를 갖는 것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 역시 거주기간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사업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의 경우 폐가활용의 욕구가 큰 반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욕구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이 거주기간이 긴 집단에 비해 폐가에 대한 인상이 더 부정적이어서 문화시설(미니도서관, 미니전시관 등)로의 전용을 통한 폐가의 활용 욕구가 큰 반면, 거주기간이 긴 집단은 경관으로서의 폐가에 익숙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경관개선의 필요성으로도 이어지는데,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경관개선의 욕구가 더 큰 반면,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집단에서는 경관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인식 차이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능안골에서 15년 이상 거주자들의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항목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분석 결과는 이러한 개개 지역에서의 응답이 총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2〉 참조).

소득이 높은 집단은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을 내 행사나 잔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인식도, 만족도, 필요성에 대한 평가 역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일관되게 높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일관되게 낮은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소득과 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이 높은 집단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 소극적인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은 담장 허물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데 소득이 높은 가구는 자체 주차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세 번째 해석은 주차장 확보 사업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능안골과 서원마을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발견된 반면, 선유골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13〉 참조).

학력이 낮은 집단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사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암시한다. 또한,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90% 신뢰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업에 있어서 학력이 낮은 집단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적극적인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은 담장 허물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 계층

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sup>3)</sup> 소득과 담장 허물기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학력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마을행사의 참여에 적극적이고 유대감 형성을 중시해서 전반적으로 공동체 지향적인 반면에 고학력층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sup>4)</sup>.

지역별로 나누어서 학력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능안골의 고졸 이하 계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 외에는 중요 항목에서 대차가 없음이 확인되었다(〈표 14〉 참조).

〈표 13〉 소득계층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 4천만	~ 8천만	~ 1억	df	F	sig.
지역애착심	3.84	3.88	3.55	2	.989	.375
인식도	3.82	3.50	3.39	2	1.852	.162
만족도	3.66	3.38	3.29	2	1.139	.324
필요성	3.90	3.88	3.74	2	.274	.761
담장 허물기	4.08	3.78	3.39	2	3.323	.040
주차공간	4.52	4.25	3.90	2	3.371	.038
마을행사	3.58	3.69	3.10	2	3.164	.046

〈표 14〉 학력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df	t	sig.
지역애착심	3.85	3.75	111	.426	.671
인식도	3.92	3.52	111	1.721	.088
만족도	4.00	3.32	111	2.673	.009
필요성	4.23	3.74	111	2.363	.020
담장 허물기	4.31	3.66	111	2.485	.014
마을행사	3.85	3.37	111	2.115	.037
유대감 형성	4.23	3.75	111	2.055	.042

차량이 없는 가구는 골목길 정비에 무관심한 반면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골목길 정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목길

3) 본 조사에서 소득과 학력 간에는 99% 신뢰수준에서 0.428(spearman p)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고학력층의 담장 허물기에 대한 소극적 태도 역시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비의 목적이 원활한 차량통행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인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는 소유 차량 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요 항목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5〉 참조).

〈표 15〉 차량 소유 대수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0대	1대	2대	3대	df	F	sig.
담장 허물기	3.89	3.80	3.74	3.94	3	.116	.951
주차공간	3.89	4.39	4.26	4.13	3	.704	.551
골목길 정비	3.11	4.41	4.21	4.25	3	3.852	.012

〈표 16〉 주택유형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단독	기타	df	t	sig.
지역에착심	3.78	3.75	111	.128	.898
인식도	3.78	3.19	111	2.732	.007
참여도	3.70	2.97	111	3.476	.001
형평성	3.21	2.59	111	2.419	.017
만족도	3.68	2.97	111	3.022	.003
필요성	3.98	3.53	111	2.264	.025
담장 허물기	3.95	3.44	111	2.075	.040
리모델링	3.65	4.00	111	-1.676	.097
보차분리	3.75	4.13	111	-1.738	.085
주차공간	4.30	4.22	111	.348	.728
빈집활용	3.28	4.09	111	-3.415	.001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담장 허물기나 주차공간 확보와 같이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단독주택 거주자의 참여도와 만족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여타 주택유형(연립, 다세대, 다가구) 거주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식도는 다른 말로 관심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인식도가 여타 주택유형의 거주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착심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적극성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박현근·유현숙(2005) 역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주민조직 참여도가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와는 맥락이 다소 다른 결론으로 볼 수 있다.<sup>5)</sup>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이 역시도 사업이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있어서 예상대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담장 허물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두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차공간의 미확보로 인해 여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이는 안전 등의 이유로 보차분리를 요구하는 인식이 여타 주택유형 거주자들에게서 오히려 높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예상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는 연립 등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빈집 활용은 주로 폐가화된 단독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소유권 등의 문제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에 있어

5) 박현근·유현숙(2005)이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참여도가 높다고 지적한 것은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본 연구 대상지에는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도 사업의 중요항목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6〉 참조).

직업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전업주부의 지역애착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Conway and Hachen(2005)의 지적처럼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강조(1999)는 공무원의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착심과 달리 참여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높은 애착심은 특별히 설명하기 어렵다. 기타 항목에 있어서는 직업집단 간에 특기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표 17〉 참조).

〈표 17〉 직업별 지역애착심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전업주부	자영업	학생	무직	이퇴	df	F	sig.
지역 애착심	440	357	378	411	317	385	350	377	6	2.341	.087

〈표 18〉 마을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식

	서원마을	능안골	선유골	df	F	sig.
지역 애착심	4.00	3.50	3.84	2	2.540	.083
인식도	4.13	3.05	3.72	2	12.921	.000
참여도	4.05	2.88	3.63	2	15.997	.000
만족도	4.26	2.57	3.72	2	35.798	.000
필요성	4.49	3.14	4.00	2	31.834	.000
주민자치조직	4.33	3.10	3.84	2	18.747	.000
자치규약	4.05	3.12	3.88	2	9.710	.000
주민대표	4.21	3.10	3.81	2	12.086	.000
마을행사	3.67	3.10	3.75	2	5.033	.008
유대감 형성	4.36	3.33	3.94	2	11.163	.000
담당 허물기	4.26	3.40	3.78	2	5.497	.005
주차공간	4.56	3.83	4.50	2	6.339	.002

〈표 18〉에서 나타난 마을 간 차이는 서원마을에서 주민의사의 반영률이 높고 참여도가 높은 반면, 다른 두 마을에서는 주민의사의 반영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에 기인하는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김혜정, 2012).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 경로는 지역에 대한 높은(낮은) 애착심→사업에 대한 높은(낮은) 인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낮은) 공감→사업에 대한 높은(낮은) 참여도→사업에 대한 높은(낮은) 만족도→지역공동체 유대감의 제고(정체)로 해석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서원마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진 반면, 다른 두 마을은 상대적으로 관주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원준혁·김홍순, 2012). 〈표 18〉은 자율적인 사업추진과 관주도의 사업추진이 상이한 사업성과, 참여도,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조직에 있어 서원마을과 선유골은 주민자치조직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마을센터를 확보하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능안골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의 부재와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주민대표의 역할에 있어서 서원마을과 선유골은 주민들의 주민대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에 비해 능안골은 주민대표의 활동이 다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마을행사에 있어서는 모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행사의 개최가 부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능안골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더 좋지 못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마을 모두 자치규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평가는 참여도나 만족도에 비례해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담장 허물기에 대한 서원마을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서원마을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가 실시된 반면, 능안골과 선유골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담장 허물기가 이루어져, 서원마을 주민들이 담장 허물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주차공간에 있어 서원마을의 경우,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모든 가구들이 1~3개 정도의 주차공간을 소유하게 되었고, 선유골의 경우 가로변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능안골의 경우, 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기타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집단 간, 지역 간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대상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행태 및 계획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학력, 주택소유 여부, 직업, 지역에 대한 애착심 등 여덟 개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 여덟 개 변수에 대한 가설을 구축하고 검증한 결과 연령과 소득, 지역에 대한 애착심

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다섯 개 변수들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세 개 가설 중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만이 채택되고 연령과 소득 관련 가설은 선행적 경향성의 부재로 기각되었다. 즉,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참여도가 높게 나왔지만 20, 30대에 비해 40대의 참여도가 부진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도 중간소득층의 참여도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여덟 개 인적 특성에 근거하여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에 있어 지역 애착심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병용(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여타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모든 인구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개별 계획요소들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담장 허물기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지지는 소득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의 확보가 저소득층에게는 절실하지만 고소득층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차량을 소유한 집단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골목길 정비를 원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그 필요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단독주택거주자들이 담장 허물기를 선호하는 반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연립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서 더 높다는 점, 단독주택을 활용한 빈집 활용에 대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부정적 반응, 연립 등 기타유형 주택거주자들의 사업에 대한 냉담한 반응 등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 특성에 근



거해서 일반론적 경향성을 추론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마을별로는 서원마을의 참여도와 평가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높은(낮은) 애착심→사업에 대한 높은(낮은) 인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낮은) 공감→사업에 대한 높은(낮은) 참여도→사업에 대한 높은(낮은) 만족도→지역공동체 유대감의 제고(정체)의 경로를 통해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적 특성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성별(여성), 연령(고령층), 학력(저학력), 단독주택거주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0대 중간소득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의 발굴과 참여가능한 시간대와 장소, 방법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삶의 질'(livability)의 고양과 관련된 이슈의 개발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SNS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을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대한 높은 애착심이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식, 자발성 등을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분명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자가소유자들의 미온적 참여는 주민들이 사업의 경제성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제성은 아니더라도 삶의 질 차원에서 마을이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립 등 기타유형 주택 거주자들의 사업에 대한 참여와 반응이 다소 냉담하므로 이를 개선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분석결과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항목에서 전체 응답과 대체로 유사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일부 문항에서 응답자 수가 많은 능안골 및 서원마을과 응답자 수가 적은 선유골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각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지역별 설문부수가 충분치 않지만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 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서울행정학회.
- 구자훈·이희정·한기정·우영일, 1996,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강조, 1999,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두·전원식·황희연, 2006,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특성분석”, 『2006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51~164,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 김동근, 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5~17,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 김영·이필용·김남룡·정규식, 2008,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1(3): 87~108,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익식·장연수, 2004, “지역사회 정치문화 및 주민참여

- 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31~49,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재호 · 오세규, 2001, “공동주택 단지의 재 계획과정에서 적극적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1(2): 51~55, 대한건축학회.
- 김혜정, 201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6): 65~74, 대한건축학회.
- 문상필, 2002,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사천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기영, 2008, “주민참여와 마을 만들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엮음, 『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서울: 한울.
- 서울특별시, 2010, 『서울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 서울특별시, 201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설계 길라잡이』.
- 송혜승 · 이명훈 · 이명규, 2008,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3): 37~53,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양덕순 · 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한국지방자치학회.
- 양재혁, 2010,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정에 관한 정성적 평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26(7): 175~182,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 원준혁 · 김홍순, 201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3(6): 55~68, 한국도시설계학회.
- 이병용, 2006, “지역개발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준 · 이상문,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39~55,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이지혜 · 이명훈 · 전병혜, 2009,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분석”, 『국토계획』, 44(1): 73~85,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정하웅, 2007,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1~29, 한국지역개발학회.
- 최정민, 2005,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7): 25~41,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태윤재 · 박소현, 2010, “마을 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7): 175~182, 대한건축학회.
- Conway, B. P. and Hachen, D. S., 2005, “Attachments, Grievances, Resources, and Efficacy: The Determinants of Tenant Association Participation Among Public Housing Tenan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1): 25~52.
- Lall, S. V., Deichmann, U., Lundberg, M. K. A., and Chaudhury, N., 2004, Tenure, Diversity, and Commitment: Community Participation for Urban Service Provis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Musso, J. A., Gaeke, M., and Avery, C., 2001, *The Geography of Neighborhood Organizational Activity in Los Angeles*, Neighborhood Participation Project,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Olsen, M., Perlstadt, H., Fonseca, V., and Hogan, J., 1989,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Associations”, *Sociological Focus*, 22(1): 1~17.
- Oropesa, R. S., 1992, “Social Structure, Social Solidarity, and Involvement in Neighborhood Improvement Associations”, *Sociological Inquiry*, 62(1): 107~118.
- \_\_\_\_\_, 1995, “The Ironies of Human Resource Mobilization by Neighborhood Associ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1): 235~251.
- Perkins, D. D., Brown, B. B., and Taylor, R. B., 1996, “The Ecology of Empowerment: Predicting Participa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2: 85~110.
- Rich, R., 1988, “A Cooperative Approach to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Voluntary Organizations and the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7: 5~18.

Verba, S. and Nie, N.,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원 고 접 수 일 : 2012년 9월 4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2년 11월 13일  
2 차 심 사 완 료 일 : 2012년 12월 24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3년 1월 9일